

자발적 비혼 여성이 ‘단독 출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적 연구: 2030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이 세 민[†]

연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주체성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내적 갈등 속에서 ‘단독 출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체험을 분석하였으며 단독 출산의 관점에 대한 경험과 현상을 특징짓는 본질적 주제를 찾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비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경험하였지만 변화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둘째, 비혼 여성들은 부부 출산만 허용되어지는 현실에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셋째, 비혼 여성들은 출산에 대해 여성의 주체성 관점에서 접근한다. 넷째, 비혼 여성들은 출산이 결혼의 결과라는 한국사회의 출산·육아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비혼 여성들은 단독 출산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과 지지에 대한 양가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자발적 비혼 여성, 단독 출산, 모성 선택, 여성의 주체성, 여성의 자기결정권, 해석학적 현상학

* 본 논문은 이세민(2021)의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세민,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thinknplace@naver.com

현대 사회로 오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결혼관 또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2021)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혼인 건수는 21만 건으로 전년대비 10.7%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구 1천명 당 4.2건으로 2011년 이래 9년 연속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고 특히 혼인의 주 연령대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각각 -7.4%, -5.2%로 전년대비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비혼의 증가와 만혼현상으로 인하여 비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혼 여성의 증가 추세는 우리 사회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제도 및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비혼 가구의 가치관, 생활 실태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유계숙, 강민지, 윤지은(2018)의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층에서 '혼밥·혼술'을 즐기는 '나홀로 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개인주의화된 청년 문화로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청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가족이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연구에서 청년 세대의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자 대학생과 어머니 집단의 가족 가치관 비교를 통한 세대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손승연과 김은정(2010)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이 어머니에 비해 비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계숙 등(2018)의 연구에서도 2001년 20대 청년들에 비해서 2017년의 청년

들이 확연하게 비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 자녀 간 일체감이나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에서 상당히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정화(2014)의 연구에서도 2008년과 2012년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결혼의 긍정적 태도와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낮아지고 동거와 혼외 출산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8)의 국민생활모습과 의식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0년 이래 매년 감소하여 2018년에는 48.1%로 전체의 절반을 하향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이 가족과 사회를 구성하는 생애의 과정이라고 여겨졌던 과거의 인식이 현재는 더이상 의무가 아닌 전통적 규범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자율적인 선택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혼인율의 급격한 감소는 '비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대두와 더불어 가족의 형태나 가치관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해지는 시대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장경섭(2018)은 청년세대에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재생산이 회피되는 것을 가족 중심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자기부과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설명한다. 결혼과 출산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주체적인 경험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관의 변화는 비혼, 만혼, 결혼 기피 등 최근 사회 현상과 연결되며,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등과 맞물려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정하, 박정운, 윤나나, 2017).

정책적으로 보이는 변화의 기초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기 위하여 차별적인 현행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0)는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용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전통 가족 중심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세대·젠더 간 위계구조 없는 평등한 가족 관계 구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초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확대와 다양한 가족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 3의 가족 유형으로 불리는 한부모(single parent) 가족은 1970년대 3백만 명에서 2005년에는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국적으로 한부모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단독 출산(single mothers by choice)의 증가현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Ben & Weinberg, 2007). 지난 20년간 3배 이상의 비혼모가 증가한 것과 비혼 여성에 의해 매년 28%의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6)는 현대 가족의 중요한 하위집단의 형태로 비혼모 가족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경, 이민영, 2008).

국내에서는 최근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하였음을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비혼 출산이 불법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법적·윤리적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 임신에 대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에는 보조 생식술을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정자 기증 또한 주로 난임·불임부부에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비혼 여성이 기증받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2021)의 사회동향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60.4%, 영국은 48.4%, 스페인 47.3%, 미국 39.6%인데 비해 한국은 2.3%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결혼 형태나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그들을 동일한 가족으로 보는 패러다임(Fitzpatrick & Pawson, 2007)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는 것에 비해 한국사회는 아직도 비혼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적 결함의 차원으로 보거나, 제도적 편입에 있어서 미적격자(공나형, 2020)로서 능력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비혼으로 모성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이 낮은 혼외출산율의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Burns와 Scott(1994)의 연구결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비혼 여성의 모성 선택 현상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0여년에 걸쳐 나타난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들은 여성들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모성(motherhood)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받아 나타난 주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김현경, 이민영, 2008). 여성가족부(2020)의 가족 다양성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고 답한 국

민은 전체의 48.3%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비혼모를 기존 사회질서를 역행하는 대상자로서 인식하고 아버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핍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Rogers, 2008). 비혼으로서 모성을 선택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 여러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강라현(2019)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비혼모 연구가 여성의 주체성 보다는 주로 취약성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한다.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여성 청년들의 삶을 취약성 관점에서 벗어나서 주체성과 자기 결정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또한 'single mothers by choice' 용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자발적 비혼모, 비혼 출산, 선택적 비혼모, 비혼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 미묘한 해석적 차이가 나타난다. Mattes (2002)는 'single mothers by choice'를 자신이 자녀의 단독 부모가 될 것임을 알고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할 의사가 없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체적 선택에 기반하여 출산을 하는 행위 및 행위자로서 '단독 출산(single mothers by choice)'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여성의 주체성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내적 갈등 속에서 '단독 출산(single mothers by choice)'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적 상황을 경험한 의미에 대해 해석해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여성들의 주체성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발적 비혼여성들에게 있어서 ‘단독 출산’의 본질적 의미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여성 중 비혼의 사유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여성이다. 둘째,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여성이다. 셋째, 20-30대 자발적 비혼 여성 중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은 여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여성이다.

위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탐색하기 위하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주변의 비혼자 3명을 대상으로 최초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2명은 연구자가 속해 있는 온라인 독서모임의 참가자이고 나머지는 연구자의 직장동료이다. 추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총 1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8명 이상을 선정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이는 '경험이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을 위해서는 적어도 8명 이상의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체험이 필요하다'는 van Manen(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28세부터 39세의 비혼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번호	연령	학력	직업	부모와 동거여부	종교	월 급여
1	35	석사	심리상담사	비동거	개신교	200-300만원
2	33	석사	사회복지사	비동거	개신교	200-300만원
3	39	박사 과정	대학원생	동거	개신교	100만원 미만
4	32	석사 과정	대학원생	동거	무교	100만원 미만
5	29	학사	교사	동거	무교	200-300만원
6	36	석사	기업 강사	비동거	불교	500-600만원
7	33	학사	자영업	비동거	무교	300-400만원
8	37	석사	엔지니어	모와 동거	개신교	400-500만원
9	28	학사	교사	비동거	무교	200-300만원
10	34	석사과정	노무사	비동거	불교	400-500만원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33.6세 이며 모두 대학 및 대학원을 수료 및 졸업한 자였으며 대학원생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원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4명, 나머지는 독립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자료는 깊이 있는 탐색과 심층적인 면을 파악하고자 일대일 면접법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7월 초까지 수집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와 시간대에 만남을 가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평균 1-2회의 반 구조화된 면담을 90분에서 120분 동안 진행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 그리고 질문지를 미리 메일로 보내어 연구에 대한 목적

과 취지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며 동의를 한 사람들 중에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전화 면담을 통해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대면 면담을 시작할 때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참여방법,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비밀보장 등에 대하여 재차 고지하였다. 또한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면담 철회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 한 후 연구 동의서 2부에 참여자, 연구자 모두 서명하고 각각 나누어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의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면담을 진행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저장하였으며 비밀보장을 위하여 모든 문서는 암호를 설정하여 보관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자발적 비혼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질문에서부터 참여자가 사용한 핵심단어를 재질문하

는 방법으로 점차 심도 있는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심층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수집된 원자료는 축어록으로 텍스트화 하였으며 이후 의미 있는 진술에 대한 공통 주제를 연결하고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해석학적 현상학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론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파생되었으며, 현상학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에서 철학적 시사점을 얻는다(김영천, 이현철, 2017). 철학적 내용으로서의 현상학은 ‘현상학적 환원’을 주장한 19세기 독일의 Husserl로부터 시작되어 Heidegger의 존재론적 현상학,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 Gadamer의 해석학적 현상학 등으로 이어지면서 20세기 철학의 주요 사조를 이루었다(전가일, 2015). 이와 같은 철학적 전통을 기초로 하여 현상학을 철학적 내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생활 세계 속의 인간 체험을 현상학 특유의 독특한 태도와 관점에서 탐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기게 되면서 현상학은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에 철학적 배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 의료, 심리학 등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실천 현상학(phenomenology of practice)’을 가능하게 하였다(전가일, 2015; van Manen, 2014). 현상학적 탐구는 전체론적이면서도 분석적이고 유일하면서도 보편적이고 강력하면서도 예민한 언어로 탐구할 현상을 어떻게든 포착하려는 창조적인 노력이다(전가일, 2015; van Manen, 1994). van

Manen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대해 개인의 삶의 경험에 관심을 두고 의미와 내적 구조를 심도 있게 기술하면서 현상에 대한 본질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해석을 아우를 포괄적 개념의 연구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한혜림과 이지민(2020)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가 다른 현상학 연구와 구분되는 특징을 첫째, 특정 현상에 대해 반성하며 통찰력을 높이기 위한 글쓰기 과정을 강조하며 현상에 대한 관찰, 조사, 분석 등을 마친 후 해당 현상에 대해 정리하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둘째, 현상에 대한 경험의 원천으로 어원이나 관용어구, 문학, 영화 등의 예술작품을 활용하여 특정 현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 가능하며 셋째,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는 특정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거리두기를 통해 현상에 더욱 집중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인간 존재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주시 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발적 비혼자들이 한국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체험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van Manen(2002)의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체험을 분석하였으며 그들이 바라보는 ‘단독 출산(single mothers by choice)’에 대한 관점과 현상을 특징짓는 본질적 주제를 찾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현상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분석하고 현상학적 텍스트를 해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존

적 경험의 세계의 확장을 돕고자 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링컨과 구바(Lincoln & Guba, 1985)의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참여자들이 말한 그대로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리에보우(Liebow, 1993)가 제시한 장기간에 걸친 라포형성을 통해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실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로 귀환과 재확인(Padgett, 1998)의 과정을 적용하여 자료의 분석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에게 내용검토를 요청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개별 경험에 대한 구술(storytelling)과 분석 내용에 대한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 수행 전 연구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모두 기술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과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여러 질적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 2명에게 3차레이상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해석에 대한 타당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결 과

자발적 비혼 여성이 단독 출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으로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경험했지만 변화를 기대함

·비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비혼'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 혹은 '크게 상처 받은 적 있어?'라는 부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였다.

비혼자라고 선언했더니 엄마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남사스럽게,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안 해? 지금까지 공부시켜줘, 유학보내줘 (중략) 뭐가 부족해서. 누가 보면 저 집 딸내미 무슨 문제 있나 하겠다. 어? 진짜....음.. 서운함, 답답함 보다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엄마조차도 이렇게 말하니 다른 사람들 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다 싶었죠. <연구 참여자 7>

저보다 어린 동생에게 말했거든요. 그래도 요즘 친구들은 좀 깨어있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바로 '언니, 혹시 연애하면서 크게 데인적 있어요?'아니, 왜 결혼을 안한다는게 과거의 무슨 충격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다는 거잖아요. 결혼은 안한다고 하면 꼭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

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4>

비혼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패러다임을 내세우며 비혼 여성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함께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편견을 넘어선 간섭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지속적인 편견뿐 아니라 간섭으로 이어지는 경험도 하였다. 한국 사회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안정감 등 가족중심제도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문화는 친밀함과 유대감의 표현이라는 이름하에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진다.

방송에서도 많이 회자되는데요. 명절증후군이요. 코로나 때문인지 지난 설은 가족들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던 고모님이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OO아, 너 만나는 사람은 있니? 그러다 결혼할 나이 놓치지 말고 누구 있으면 결혼해 야지. 네가 가야 네 동생도 가지' 정말 방송에 나올만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중략) 30살이 넘어가면서 부터 '이제 결혼할 나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결혼할 나이는 누가 정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구 참여자 3>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셨대요. '그 집 딸은 시집 안가요? (만나는)사람 없으면 내가 한 번 알아볼까? 예쁜 때 가야지.' 그 얘기

듣고 독립해서 나가야 하나 싶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 혼사까지 신경을 쓰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연구 참여자 4>

변화에 대한 기대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적 편견과 간섭 속에서도 비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그들은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정책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비혼의 삶에 대한 변화의 기초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요즘은 '행복한 비혼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 비혼자예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바뀌었다 생각했죠.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비혼'이라는 해시태그를 찾아봤거든요. 만개가 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문)기사에서도 종종 봐요. 정부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진짜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9>

제가 늦둥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결혼하시고, '난 결혼 안 할 거야'라고 말하면 '철딱서니 없는 0'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 너 혼자 하고 싶은 것 다하고 맘껏 한번 살아봐라' 하세요. 여기저기서 비혼 이야기도 많이 듣고, 티비에서도 보셨어요. 여자도 하고 싶은 것 다하는 세상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연구 참여자7>

둘째, 부부 출산만 허용되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의 경험

강하게 자리 잡은 노골적 시선

비혼 단독 출산 여성에게 가해지는 시선은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다양한 가족이 출현함으로써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현재에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아이 낳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할 걸요? 혼전임신? 임신하고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자발적 비혼 여성이라고 말하면 허울 좋은 소리라고 해요. 뭔가 모자란 여자, 불쌍한 여자, 혹은 기가 썩은 여자 프레임을 씌우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요. 결혼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아이도 혼자 낳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만 좋으면 아이의 불행은 어떻게 책임질건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아이 혼자 키운다고 불행할 것이라는 결론은 어디서 나온 거죠? 왜 꼭 행복한 가족의 그림은 아빠, 엄마가 손잡고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어야 할까요? <연구 참여자 8>

이번에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을 보고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택을 나도 해볼까? 라고하면 다들 말려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 연예인이니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키우지. (중략) 일반인이 비혼으로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고.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걱정을 하죠. 너만 선택 하냐고. 아이도 아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불행해 질것이 뻔한 선택을 왜 하느냐고 말이죠. (중략) 아빠가 없다는 것이 왜 불행으로 이어질까요? 이런 변화지 않는 현실에 대해 비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의 강력하고도 노골적인 시선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편견으로부터 때론 비참함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법과 윤리지침 사이에서의 혼란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합법논의가 화제가 되었다. '여성이 혼자 임신·출산할 권리'는 현행법상 불법이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법과 현실적 시행이 위배되는 상황 속에서 비혼 여성들은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여성도 출산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때(준비)가 되면 나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 봤거든요. (중략) 그런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합법적으로는 가능하데요. 그런데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윤리지침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이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거예요. 배우자 동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되지만 안되는거예요. 그게.. 이런 현실이 참 혼란스럽기도 하면서 답답해요. 누구

하나 해당 문제에 관해 책임지기 보다는 떠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10>

강하거든요? 출산 또한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어요. <연구 참여자 1>

셋째, 여성의 주체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출산’

취약성 보다는 주체성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정상 가정을 이루지 못 한 결핍자로서 취약성을 가진 여성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거나 소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기결정권자로서의 관점에서 ‘단독 출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출산 한다고 하면 다들 생각하는 것이 비슷 할거예요. ‘문란한 여자’ 라던가 (중략) 출산 후에는 ‘혼자서 애키우는 여자’, ‘뭐 때문에 혼자 애키우지?’ 여러 가지 원인을 상상하죠. 문제적 원인에 의한 결과는 아니죠. (중략) 이런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단독 출산이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이는 곧 선택의 결과이거든요. <연구 참여자 3>

보통 미혼모나 비혼모라고 하면 원치 않게 임신이 되어서 낳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여성이라는 인식이

미혼모 보다는 자발적 비혼 출산

외국의 경우에는 비혼모 발생을 개인적 결함의 차원보다는 사회전체 변화와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지지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자로 인정하고 있다(이은주, 최규련, 2014). 우리 사회는 배우자 없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미혼모’라고 명명하며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우려하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여성을 표현하는 언어에 있어서도 거부감과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언어는 곧 사회의 인식이며 문화가 반영되는 도구이다.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전에서 미혼모를 정의하는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이라고 나오거든요? 임신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자 주체적 선택의 사항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4>

자발적 비혼 여성이 사실 최근에 와서야 익숙해 졌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사유리씨의 출산이고요. 이전에는 대부분 그냥 미혼모였어요. 미혼모라는 명칭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그 용어에 새겨져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중략) 결혼을 해야 하는데 못 한 여자가 엄마가 되었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거죠. 뜻 안에서 이미 부족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략) 자발적 비혼모? 라든가. 사회적으로 용어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0>

넷째, 출산은 결혼의 결과라는 한국사회의 출산·육아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 가족, 공동체 가족, 비혼모, 비혼부 가족 등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수정되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중받고 보호되기를 바라였으며, 비혼 출산의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결혼을 한 여성에 대한 적용 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에게도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과 상관없이, 배우자의 유·무가 아니라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일요.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의 정상이라는 논리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오길 바라요. <연구 참여자 1>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결혼을 한 사람에

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언급되었지, 자발적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외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있거든요. 출산이 결혼의 결과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0>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현재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들이 많다(노연희, 2017). 가족의 복지제도를 보면 부부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비혼 출산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지원체계의 보장과 혜택에서 배제됨을 경험하였다. 통상적으로 '선택적 임신과 출산'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소외와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정자 기증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에서는 정부지원을 받기 어렵죠. 그리고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의 대한 지원정책도 있지만 이건 저소득 미혼모 중심이에요. 다양한 가족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제도는 발 맞추어 따라오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5>

비혼 여성들은 사회 제도의 혜택에서 빠져있는 것 같아요. 1인가구의 증가가

죽형태의 다양성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정작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택청약에서도 가산점과 같은 혜택이 크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 비혼자의 임신과 출산이요?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단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결혼과 출산은 인과 관계에 있고 복지혜택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떠한 가족의 형태든 소수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오길 바라요. <연구 참여자 9>

다섯째, 단독출산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과 지지에 대한 양가성에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감

편견과 지지에 대한 양가성

연구 참여자들은 비혼 출산에 대하여 지지를 하면서도 우려하는 경험을 하였다. 비혼 여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지만 단독출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강한 편견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 비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편견과 지지의 양가성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배우자 없이 비혼 출산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어요. 대단하죠. 사유리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 단독 출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 하거든요. 혼자서 사는 건 살겠는데, 과연 아이를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과연 행복할까? 아이한테 미안하진 않을까? 복

잡한 감정이 들어요. <연구 참여자 5>

혼자서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 대한 시선이 있잖아요.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개방적이예요. 그런데 내 한 몸 책임지는 것과 누군가의 삶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요. <연구 참여자 8>

은전한 내 삶의 주인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고정된 역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결혼은 하기 싫었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했을 때 희생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는 키우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같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했죠. (중략)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뉴스를 보고 머리에 뻥 하고 뭔가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능한 거였구나. 그래, 결혼을 선택 할 수 있다면 출산도 내가 선택 할 수 있겠구나. 내 몸을 내가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죠. 결혼한 여성이 '나로서 사는 건 불가능 하다는 걸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며 살고 싶어요.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재미있고 성취감도 들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은 너무 버거워 보였어요. 며느리 가라는 드라마를 보며 더 확실해 졌죠. (중략) 누구의 무엇으로 사는 것 보단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도 온전한 나의 삶으로서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6>

미래를 위한 준비와 기대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만큼 모성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가끔은 노후걱정을 해요. 나이 들면 혼자인 게 서럽다 등등 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때론 걱정되기도 하죠.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서 외롭진 않을까? 얼마 전 예능프로그램에 이영자씨가 요양원을 둘러보는게 나왔어요. 예전에 상상하던 요양원의 모습과는 180도 달랐어요. 노후에 저렇게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진짜 많이 변화고 있구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도 해야 겠다 생각 들었어요. 제가 늙었을 땐 더 좋은 시설도 많이 생기겠죠.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우기보단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제 삶은 만들고 싶어요. (중략) 내 삶이 기대가 되요. <연구 참여자 8>

제가 꿈꾸는 모습은 예를 들어, 학교에

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와 아이만 그려도 '아빠는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은 맞아요. 그리고 어려움도 많겠죠. 저의 선택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선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볼 것 이라는 것은 변함없어요. 지금 선택한 제 삶(자발적 비혼의 삶)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앞으로의 삶(단독 출산)도 어떨지..궁금해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설레기도 해요. <연구 참여자 6>

논 의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비혼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20-30대 여성들 중 단독 출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연구로서, 이들의 삶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van Manen (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비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경험했지만 변화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Hartwig (201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가족, 친구 및 중요한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자신의 삶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umino et al. (2017)의 연구에서도 비혼모의 삶과 양육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의 강력한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Alsarve(2017)의 연구

에서도 비혼모들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의 보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비혼 여성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을 경험하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곧 결핍의 대상으로서 비취지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비혼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결혼을 하는 것이 곧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제도와 문화 등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곧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며 삶에서 불편감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편견과 간섭 속에서도 비혼자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기초를 실감했으며 가깝게는 부모로부터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정책적 변화에서도 경험하였다.

둘째,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부부 출산만 허용되어지는 현실에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혼모들을 ‘남자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표화 된 거나(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2017), 부도덕하고 자신을 관리할 수 없는 여성으로 간주되는(김혜영, 2013) 등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어려움을 지닌 대상으로 표현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노골적인 시선이 가족의 다양한 형태가 출현했음에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통해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여성이 혼자 임신·출산할 권리’는 현행법상 불법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경험하며 법과 현실적 시행이 위배되는 상황에 대하여 혼란을 경험하였다.

셋째,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출산에 대해

여성의 주체성 관점에서 접근한다. 표준화된 정상 가정에서 벗어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결핍과 취약성으로 표현되는 용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강려현(2019)의 연구에서도 비혼모들의 출산과 자녀 양육 그리고 그들의 삶은 취약성 관점에서 벗어나 강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주체성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는 삶의 결정권자라는 관점에서 출산에 대하여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은 비혼모라는 용어 보다는 자발적 비혼과 단독 출산이라는 용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경험하였다.

넷째,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출산이 결혼의 결과라는 한국사회의 출산·육사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제도에서 여전히 기준이 되는 가족 중심 정책들에 대하여 사회적 배제와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통상적으로 선택적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지원체계의 보장과 혜택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에서 허탈감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기혼 여성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인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혼을 선택함은 물론 홀로 출산과 양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들의 주체적 권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단독 출산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과 지지에 대한 양가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발적 비혼 여성들은 비혼

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성과 주체성을 띠었지만, 단독 출산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타인의 단독 출산에 대하여 적극적 지지의 행동을 보였으나 자신에게 적용하였을 때에는 편견적 시선이 드러났다. 이런 모순된 감정에 대하여서도 혼란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고정된 역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자아실현의 삶을 경험하면서도 자발적 비혼의 삶에서 출산에 대한 의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래의 삶에 대하여 현실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다가올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을 함께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소규모 질적 연구이며, 선험적 연구로서 현상의 보편성에 대한 실증적 답을 주는 것에 대한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낮은 학력수준이나 직업을 갖지 않은 20-30대 여성들의 자발적 비혼의 삶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현재 속해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영향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비혼으로 사는 1인 가구, 비혼 이지만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가구 등 다양한 삶의 형태의 자발적 비혼 여성에 대한 경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비혼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으로 제한하였기에 다양한

맥락을 포착하지 못 하였다. 20-30대 자발적 비혼 여성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발적 비혼 여성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더 폭넓은 특성을 지닌 여성들의 삶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넷째, 같은 연령대의 비혼 남성이 바라보는 단독 출산에 대한 경험은 파악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2020)의 단독 출산에 대한 남성의 수용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남성들의 삶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점과 의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발적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화된 삶의 방향을 조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비혼모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비혼모에 대한 사회 서비스(변호순, 최정균, 2016; 이용우, 2017; 김정희, 김향미 2018)에 집중되어 있거나 여성의 주체성 보다는 주로 취약성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강라현, 2019). 본 연구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발적 비혼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20-30대 자발적 비혼 여성들의 삶의 이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라현 (2019). 비혼모의 출산·양육 체험에

-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지역사회 거주 양육비혼모를 대상으로. *여성학연구*, 29(2), 205-236.
- 공나형 (2020). 여성동아(女性東亞)를 중심으로 본 비혼 여성 담론의 시론(試論)적 연구. *인문사회*21, 11(3), 13-28.
- 김영천, 이현철 (2017). 질적 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현경, 이민영 (2008). 자발적 비혼모의 선택 체험에 관한 연구: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24, 5-36.
- 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여성학연구*, 25(2), 7-40.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1), 7-41.
- 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2017).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56, 169-196.
- 노연희 (2017). 중년기 미혼여성의 노년인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20).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유계숙, 강민지, 윤지은 (2018). 청년층의 가족 개념과 가치관: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3), 42-69.
- 이명희, 조결자 (2003). 미혼모에 대한 국내논문 분석. *부모·자녀건강학회지*, 7(1), 73-88.
- 이은주, 최규련 (2014) 시설비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2), 247-260.
- 이정하, 박정윤, 윤나나 (2017).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2), 183-214.
-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33집. 서울: 집문당.
- 전가일 (2015). 의료화된 조산 체험의 의미 탐구. *교류인류학연구*, 18(1), 105-152.
- 진미정, 한준, 노신애 (2019). 20-30대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1(1), 166-188.
- 통계청 (2019). 2018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19). 2018년 혼인·이혼 통계.
-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0.
- 한혜림, 이지민 (2020). 30-40대 자발적 비혼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대한가정학회*, 58(2), 201-214.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한국인구학*. 37(4), 25-59.
- Alsarve, J. (2017). Working it out: strategies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among Swedish lone mothers.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Policy Press*, 6(3), 325-340.
- Ben, A. A., & Weinberg, K. G. (2007). The dialectics between the personal and interpersonal in the experiences of adoptive single mothers by choice. *Sex Roles*, New York, 56, 823-833.
- Burns, A., & Scott, C. (1994). *Mother-headed families and why they have increas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Fitzpatrick, S., & Pawson, H. (2007). Welfare Safety net or Tenure of Choice? The Dilemma Facing Social Housing Policy in England. *Housing Studies*, 22(2), 163-182.
- Hartwig, E. K. (2014). Social networks: A village of support for single mothers.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9(1), 23-37.
- Mattes, J. (2002). *Single Mothers by Choice*. London: Times Books.
- Liebow, E. (1993). *Tell Them Who I Am: The Lives Homeless Woman*. NY: Penguin.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 Lumino, R., Ragozini, M., van Duijn, M., & Vitale, M. P. (2017). A mixed-methods approach for analys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anchorage of single mothers. personal networks. *Quality & Quantity*, 51(2), 779-797.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arch: Challenge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Rogers, D. R. (2008). Single by chance, mothers by choice: How women are choosing parenthood without marriage and creating the new American family. *Rosanna Herz, society*, 45, 90-92.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Y: Suny Press.
- van Manen, M. (201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1차원고접수 : 2021. 11. 08.

심사통과접수 : 2021. 12. 07.

최종원고접수 : 2021. 12. 30.

A Qualitative Study on Voluntary Single Women's view on the 'Single Mothers by Choice': Focusing on 20-30's Female Youth

SeMin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ived experience of view on 'single mothers by choice' among 20-30s voluntary single women.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developed by van Man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20-30s voluntary single women have experienced negative social perceptions of non-marriage, but have expectations for change. Second, they experienced frustration with the reality that only married couples were allowed to give childbirth. Third, they approach childbirth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subjectivity. Fourth, they demand a change in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system in Korean society that childbirth is the result of marriage. Finally, they are creating new values of life while experiencing confusion of their own prejudice and support for single mothers by choice. This study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ives of 20-30s voluntary single women. It helps to understand their views on single mothers by choice,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subjectivity.

Key words : *voluntary single women, single mother by choice, choice for motherhood,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omen's subjectivity, hermeneutic phenomenology*